

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9월 목장 모임 안내

매달 둘째주와 셋째주는 목장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.

* 시간과 장소는 각 목장지기에게 확인해 주세요...

2. 이웃 초청 시니어 9월 모임

일시: 9월 16일(월)

* 이번 이웃초청 시니어 모임은 한국 명절인 추석에 맞아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합니다.

3. 김인식 목사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

일시: 9월 22일(주일) 오전 11시

* 김인식 목사는 "야곱의 축복", "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" 등의 송라이터이자 찬양사역자이다.

4. Medicare 세미나

일시: 10월 12일(토) 오전 11시 예정 (문의: 강덕성 집사)

5. 교우소식

* 9월 생일자: 김연식(10), 김도남(13), 헤더웨버(19), 강애란(28), 양복남(29)

* 조무어 형제(김버리 무어 권사 남편) 장례일정 안내: 일시-9월 10일(화)

-발인: Vaca Hills Chapel Funeral Home(522 Elmira Rd, Vacaville), 오전 9시

- 하관: Sacramento Vallay National Cemetary (5810 Midway Rd, Dixon), 오전 11시

왕의길
예배하는
교회

2024년 교회 표어: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 (베드로 전서 1:22)

실천 목표: 희생, 관용, 존경,

목회 중점 사항: 예배, 교제, 성숙, 사역, 선교

사역팀 소개:

행정/양육부: 양복남 장로, 예배부: 박용식 안수집사, 관리부: 강덕성 협동 안수집사,

미디어 방송부: 노창완 집사, 선교부: 김혜화 권사, 재정부: 김미진 집사

각 목장에서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

멕시코 (YWAM/ 김현수선교사), 대만 (IMB/ 구에드워드선교사), 인도네시아 (IMB/ 조용수 선교사),

필리핀 두마게티 (스티브마이클목사), 마닐라(정진호선교사), 베트남 (동민통 전도사, 신미짜 목사)



담임목사

강문수 Senior Pastor/Kang Moon Su (Cell 678.770.3330)

400 King's Way, Suisun City, CA 94585

TEL _ 707.803.5400



웹사이트 & 온라인 예배

400kingsway.org

400kingsway@gmail.com

주일 예배 순서 Sunday Worship Service

· 인도 : 강문수 목사	
찬양으로 경배 we worship in song	주사랑 찬양팀
기도로 경배 We worship in prayer	노창완 집사
금주의 경배의 기회들 Welcome & Announcement	공동체 소식 / 인도자
십일조와 헌물로 경배 We worship in giving	< 헌금은 들어 오실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>
말씀으로 경배 Reading Scripture	마가복음 5:35~44
말씀선포 Message	"주님의 만지심" / 강문수 목사 마가복음 강해 18
찬양으로 경배 we worship in song	다같이
축도 Benediction	강문수 목사

수요 예배 · 9월 11일(수) 오후 7시

찬송인도 we worship in song	강덕성 집사 / 기도 Prayer	이성혜 집사
"레위기 성경여행" / 강문수 목사		

아침 기도회 · 매주 화~토 오전 7시

예레미야 강해	강문수 목사
---------	--------

예배위원 안내

	9월 08일	9월 15일	9월 22일	9월 29일
주일기도	노창완	강덕성	양복남	이길용
주일방역	필리핀	추석/ 목장연합	대만	인도네시아
점심교제				
수요기도	이성혜(9/11)	이숙희(9/18)	이옥자(9/25)	한애숙(10/02)

설교노트

본문: 마가복음 5:35~43
 제목: 주님의 만지심
 설교: 강문수목사

* 들어가기

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.

* 묵상하기

A.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.

B. 주변의 부정적인 목소리 대신,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.

C.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열 두 살 된 죽은 소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.

* 적용하기

- 삶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나도 아이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을까요?
-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낙담시키는 여러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?

예배 및 모임 안내

주일예배	주일학교	수요예배	아침 기도회
오전 11시(한/영)	오전 11시	오후 7시	오전 7시(화~토)
주일 설교방송		유튜브 생방송	
			